

4»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②



5» SW 중심대학 선정



8» 유기견 보호소 '꽁꽁이네' 이야기



경희를 가득채운 봄

2월과 3월의 꽃샘추위가 지나가기 무섭게 꽃향기 가득한 봄이 성큼 다가와 캠퍼스 온 곳을 가득 채웠다. 아름다운 캠퍼스로 유명한 우리학교는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따뜻한 계절의 시작을 느끼게 했다. 학생들도 오늘 하루는 진행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친구들과 함께 꽃이 있는 모든 곳에서 봄이 머문 흔적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본관 앞에 학생들이 둑자리를 피고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일명 본관놀이라 불리는 문화는 매해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학교밖에도 유명세를 얻어 근래엔 우리학교 학생들이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국제캠퍼스도 봄에 춤추듯 반응하는 모습이다. 겨울에 활동했던 광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벤치 곳곳과 텁 아래에 자리한 학생들은 봄을 느꼈다. 사색의 광장은 그넓은 규모에 걸맞게 좌우와 가운데 벤치들이 위치해 있다. 평소라면 비어있을 공간들이지만 봄을 맞아 산책을 나온 가족들과 학생들이 가득 메웠다.

(글=기호웅 기자, 사진=이수형 기자)

청소노동자 직고용 위한 '소셜벤처' 수면 위로

자회사 '소셜벤처' 설립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4월 중, 서울캠퍼스 청소노동자 직고용을 위한 '소셜벤처'가 설립될 예정이다. '소셜벤처'는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산하 자회사 형태로 확정됐다. '소셜벤처' 설립까지 있었던 논의 과정과 그 구조에 대해 짚어봤다.

2015년 10월, 우리학교는 희망제작소가 개최한 '사다리포럼'에 참석해 청소노동자를 직고용하는 이른바 '경희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논의는 1년 넘게 진척되지 않았다. 청소노동자들은 용역회사 C&S 자산관리와 계약이 끝나가는 2016년 11월까지 학교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자, 12월 2일 총장실을 점거했다. 이후 12월 7일, 직고용 문제에 관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학교와 청소노동자는 고용안정을 위한 '소셜

벤처'를 설립하기로 합의됐다. 이후 학교는 3월 3일 자회사 설립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 27일에는 설립 기한 연장을 설명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용역업체 C&S자산 관리와 계약이 끝나는 3월 30일까지 자회사를 설립하려 했지만 대학 본부 내의 많은 부서와 회의를 거치고,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3월 27일 간담회에서 정진영 대외 협력부총장은 "5월에는 직고용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설립 기간이 연장된다고 청소노동자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 수익을 남기는 일 없이 청소노동자들의 복지와 자회사 안정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가 설립하려는 '소셜벤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가 될 예정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합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라 학교는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보급·확산을 위해 '산학 협력단'을 만들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할 수 있는데,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특허를 이용해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성을 띤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하고자 하는 '소셜벤처'는 이 마지막 단계인 '자회사'에 해당한다.

'소셜벤처'가 이러한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시원한 대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 다만 정진영 대외협력부총장은 "학교는 법인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전 논의 테이블에서 사무처 이성재 부처장은 "법인 산하 자회사 설립 시 재정과 인사절차상의 어려움이 우려돼 산학협력단 산하 자회사로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는 '소셜벤처' 자회사에 5,000만 원을 출자 했다. 서울캠퍼스의 청소노동자들이 직고용 되는 회사에 국제캠퍼스 산학협력단도 출자한 이유는 '소셜벤처' 자회사가 청소노동자 고용을 위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이지만 학교가 청소노동자를 직고용 했다고 볼 수 있다. 정 대외협력부총장은 "청소년노동자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지금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회사의 대표는 지구사회봉사단 우기동 교수가 맡게 된다. 우 교수는 "청소년노동자 분들이 경희대학교 직원으로서 일종의 자금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희대학교

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일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운영을 하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 할 예정"이라며 "자회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대학이 우리 대학을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대외협력부총장 또한 "다른 학교랑 다르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청소년노동자와 학교 구성원들이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자들은 이러한 자회사의 설립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구성원의 합의나 서류상의 절차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계속 설립이 연장되다가 결국 무산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공존하는 셈이다. 우리학교는 현재 누구도 걸어본 적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진료확인서 위조 18명 적발, 정학처분 된다

상별 위원회 징계조치

이수형 기자 dltdbd112@khu.ac.kr

지난학기 위조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출석처리 받은 학생 18명이 적발돼 징계처분 받는다. 적발된 학생 18명은 뚜렷한 친분이나 연관 관계가 없는데도 위조경위가 제각각이라, 학생상별위원회는 진료확인서 위조가 이미 학내 전반에 걸쳐 만연한 것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각각 다른 수업에서 위조 진료확인서를 사용한 이들은, 지나치게 잘

은 진료확인서 제출을 의심하던 교수들이 진료확인서를 대조해 적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진료확인서에 서명된 의사이름은 같았으나, 병원이름이 제각각인 것을 보고 해당 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위조임이 드러났다고 상별위원회는 밝혔다.

적발된 학생들은 '선배가 단체 채팅방에 뿐렸다', '동기에게 위조문서를 건네받았다'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다른 대학 친구로부터 받았다'고 전술하는 등 위조문서 출처를 각각 다르게 지목했다. 실제로 진료확인서 양식을 판매하는 사이트까지 나타난 만큼 위조가 쉽고

발부터는 정계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별위원회는 "진료확인서 위조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각 행정실에 의료 관련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학생들은 '선배가 단체 채팅방에 뿐렸다', '동기에게 위조문서를 건네받았다'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다른 대학 친구로부터 받았다'고 전술하는 등 위조문서 출처를 각각 다르게 지목했다. 실제로 진료확인서 양식을 판매하는 사이트까지 나타난 만큼 위조가 쉽고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카카오톡 플러스 ID: 경희대 학내신문 대학주보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시론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다시 뽑지 않으려면
채진원(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7면



다음 신문은 중간고사로 인해 4주 뒤인
5월 15일에 발행됩니다.

시선

사설

4월, 벚꽃놀이 후의 단상

모든 일은 보는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자기(自己)들이 한 데 어울려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합양하는 능력이 항상 강조되곤 한다. 여러 관점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만큼의 여러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너머의 진실’, ‘현상 이면의 실상’, ‘외연과 내면’ 같은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라’는 주문일 테다.

요 몇 년 새 다소 빨라진 벚꽃 개화시기 덕분에 4월의 캠퍼스는 일찌감치 벚꽃놀이를 즐기러 나온 인파들로 붐비고 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흘날리는 벚꽃 잎이 물려 퍼지는 이 거리의 풍경에서도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의 ‘이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벚꽃놀이를 즐기는 구성원들은 먼저 황홀경을 자아내는 랜드마크 건축물의 벽 너머 이면을 배려해야 한다. 그 곳에는 수많은 교직원과 대학원생의 일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매년 벚꽃과 함께 찾아오는 와자자걸한 웃음과 고함, 낭만에 찬 비명과 우렁찬 게임소리 등으로 곤욕을 치른다. 물론 군중의 이목을 사로잡고 비 일상적 환상성을 발현하는 것이 랜드마크 공간의 숙명이기는 하지만, 이곳이 유희만을 위해 지어진 테마파크가 아닌 이상 향유자들은 생활자의 일상을 최대한 존중하며 공간을 누려야 할 것이다.

벚꽃놀이를 즐기는 구성원들은 이와 더불어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견지해야 한다. 따스한 봄바람과 흘날리는 벚꽃의 이미지는 이곳을 찾은 이들을 쉽사리 낭만적 환상성의 공간으로 초대한다. 하지만 이 유희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금 현실의 시공간이 찾아든다는 점을 향유자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년 우리신문의 취재 결과 본관놀이 기간에는 미화원의 청소노동시간이 평균 36분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본관놀이가 끝난 서울캠퍼스 본관 앞 마당, 국제캠퍼스 사색의 광장의 저녁은 넘치는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는다.

이와 함께, 대학은 매년 대성황을 맞는 본관놀이가 우리학교의 대외이미지 혹은 내부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관놀이는 해가 지날수록 점차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내방객 역시 우리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타 대학생과 인근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단체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이들이 벚꽃놀이 기간 경험하는 우리학교에 대한 인식이 단지 ‘벚꽃 릴 때 캠퍼스가 아름다운 대학’에 머물 것인지,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상의 어떤 유의미한 메시지를 얻어갈 지는 대학 측이 사전에 충실히 대비하고 준비하기 나름일 것이다.

아울러, 유희의 가슴 한켠에 벚꽃과 함께 찾아오는 4월의 의미에 대한 마음을 새겨보는 것도 좋겠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중순에는 4:16과 4:19가 있다. 특히 서울캠퍼스 본관 바로 곁에는 4:19혁명을 기념하는 ‘4월 학생 혁명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해마다 4월 19일 즈음이 되면 벚나무 스스로 꽃잎을 흘뿌려 기념탑 주변에 현화하곤 한다지만, 벚나무 뒤쪽 너머의 기념탑을 굳이 찾아보고 바라보며 우리가 봄꽃에 맘껏 즐거워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준 역사의 흐름에 대해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것도 상아탑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자세일 것이다.

지식민주주의 시대의 주인공 역시 ‘지민’

미디어 여론 동향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김종영(사회학) 교수가 저서 <지민의 탄생(휴먼니스트, 2017)>을 통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조망했다.(엘리트주의 시대에 맞선 똑똑한 시민, ‘지민’의 탄생/대학주보 온라인, 2017.4.10) 김 교수는 삼성 백혈병 사태, 광우병 촛불운동, 황우석 사태, 4대강 사업을 ‘지식정치’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한다. 오늘날 대부분 정치적 이슈는 지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치, 지식 엘리트가 시민을 배신해 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지식정치를 마주한 시민이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지 않고 시민사회와 함께 지식을 찾는 ‘시민으로서의 지식인’인 ‘지민(知民)’으로 변모하는 장면을 조명한다. 김 교수는 한국



이 주의 주제 - 허위 진료확인서 징계 파문

진료확인서 위조, 범죄다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교수는 출석을 부르고 학생들은 부산스럽게 자리에 앉는데 웬 학생 하나가 시선을 땅에 두고 잰 걸음으로 교실을 빠져나간다. ‘출튀’ 현장은 언제나 본인만 느끼는 긴장감으로 스릴 넘치는 텏에 주변 시선은 신경 밖이다. 몇몇 이들에게 출튀는 뒷말이 나올지언정 한 시간 여의 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영리한 생활방식이다. 출튀가 어려운 수업에는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내밀고 다음 수업 맨 끝에 아픈 시늉을 한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빼지던 것이 점차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된다.

지난주 전주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위조지폐도 누군가에게 자본주의를 이겨내는 영리한 생활방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보기엔 여지없이 중범죄다. 위조 진료확인서도 마찬가지다. 돈을 위조했는가 사문서를 위조했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누구나 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범죄가 아니진 않다.

편법 출석은 규정을 피해 성적평가를 훈란시킨다는 점에서 커닝이나 팀플 프리라이딩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죄목에 사문서 위조가 추가되면 사실상 형법의 논리가 개입해 적발 시 정학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형법이란 것이 대학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힘들다. 흔한 말로

도덕불감증이라 한다. 이번 사례가 그렇다. 18명이 징계받은 이번 건은 영리함이 난무하던 대학에 경종을 울린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선 진료확인서 위조를 비롯한 수법이 워낙 다양한데다, 시도가 너무 많은 텏에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단돈 1,500원에 진료확인서 양식을 제공하는 사이트 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넓게 퍼져있는지를 보여준다.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들, 심지어는 성균관대처럼 모든 강의에 사진 출석부를 도입한들, 각 병원에 전화를 돌려가며 진료사실을 확인해 위조 진료확인서를 잡아낼 순 없는 노릇이다. 전화 몇 통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말할 순 있다. 다만 새 수법이 등장하겠다. ‘전화확인’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널리 고널렸다.

출석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이때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번 건처럼 징계로 본보기를 보이는 방식. 두 번째는 출석규정을 지금보다 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학교가 이 중 두 번째 방식을 쓸 경우 피해는 오로지 학생들에게 되돌아온다. ‘피치 못 할 사정’의 기준이 빠빠져진다. 이내 우리는 신용받지 못해 자유로이 병원조차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된다.

벚꽃이라도 꽂다하면 웬지 감기가 유행하고 강의실은 텅텅 빈다. 시험이 끝난 축제시즌의 강의실 풍경도 쉬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출석이야 물론 빼질 수 있다. 도는 넘지 말자. 학교 안에서도, 범죄는 범죄다.

3년의 봄

그리고 드디어 봄

세시봉

기호웅 (편집장)



꽃피는 계절이다. 봄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반영하기로 유명한 우리학교는 올해에도 화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한다. 꽃들도 그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자신들의 교태로움을 최대한 내비춘다. 학생들도 만개한 벚꽃에 하나같이 설레는 표정이다. 신입생들은 낭만적인 캠퍼스 사랑을, 재학생들은 또 다른 사랑을, 복학생들은 기적(?)을 꿈꾸며 본관 앞에서 그리고 사색의 광장에서 자리를 갖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어떠한 형태로든 봄은 많은 사람들을 설레고 꿈꾸게 한다.

하지만 올해의 봄은 이전의 봄과 사뭇 다르다. 얼마 전 세월호가 인양되어 드디어 육지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이맘때쯤 벚꽃은 꽂았지만 세월호에 대한 느낌은 바다 속의 깊이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의 세월호는 매일 뉴스를 통해 비춰지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2014년 4월 16일 나는 군 복무 중이었다. 최전방 GOP 경계 근무를 맡았던 나는 전방에 투입된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생생히 기억한다. 24시간 경계태세를 갖춘 부대특성상 식당의 뉴스채널에서 전해지는 세월호의 비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다.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문학에서만 비극이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 현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더 비극적이었다. 만약 그 날의 비극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함께 이 공간에서 봄을 만끽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기자활동을 위해 집회 취재를 가거나 광화문을 방문할 때면 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분향소를 자주 방문하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싸워온 가족들의 가슴 아픈 모습을 보며 과연 기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때로는 멋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던 일이지만 중요한 사건이고마다 느껴지는 책임과 부담감은 실로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끝이 없다. 모든 공부에는 끝이라는 게 없겠지만 변화무쌍한 세상사의 이야기를 시시각각으로 전달하는 언론은 더욱 그렇다.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언론인 고(故) 리영희 선생은 2004년 기자협회 40주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진실이지요. 기자는 진실을 추구하는 직업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말이다.

중앙일간지에 비해 부족한 학교신문이지만 학생기자로 해야 할 일들은 언제나 많다. 학내 청소노동자 자회사 설립문제와 우리 학교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기대와 우려, 종학생회와의 견제와 협업, 학내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시간강사에 대한 청우개선문제와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 산적한 문제들. 벚꽃이 지고 정신없는 중간고사가 시작되겠지만 오늘은 벚꽃을 만끽하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세월호와 기자의 역할을 생각해 봤다. 나와 우리 신문사의 역할이 부디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일이 아닌 사람을 구하는 역할이 되길 희망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대학주보 |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도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명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12

설문결과 “미래창조스쿨 잘 모른다, 하지만 기대된다”

미래창조스쿨 인식조사

류제원 기자 jennyoo95@knu.ac.kr

미래정책원은 지난 6일, 3월에 실시됐던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인식조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설문은 온라인으로는 지난달 7일부터 20 일, 오프라인으로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학교 구성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설립 취지나 사회진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설문조사에는 학부생 4,215명을 비롯한 교원 273 명, 교직원 115명, 대학원생 259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5점 척도(리커트 척도)로 발표되었으며, 예컨대 1점은 ‘매우 그렇다’, 3점은 ‘보통’, 5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한다.

미창 목적이 공감, 특히 오픈랩에 대한 기대 높아

설문조사는 미래창조스쿨의 전반적인 내용과 교육과정, 오픈랩, 인증제, 그리고 명칭 등에 대해서 이뤄졌다. 먼저 ‘미래창조스쿨의 설립목적에 공감하고 설립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평균 2.4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1, 2학년(2.37점)이 3, 4학년(2.45점)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록됐다.

대체적으로 설립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교육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3.39점으로 구성원들은 정작 미래창조스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직원 3.08점, 교원 3.26점, 대학원생 3.53점, 학부생 3.70점을 보여,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학부생의 인식이 다른 구성원들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프로그램 완성과정에서 학부생의 니즈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제기됐다.

“설문조사 통해 처음 알았다”는 등
홍보 부족 드러나

실제로 학부생들은 주관식 응답에서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어 설문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미래창조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미래창조스쿨 명칭 후보〉

CAS(Course for Advance into Society)

경희인재양성소

미래비전스쿨

미래인재개발팀

진로지원센터

Vision Drawing Center

디딤돌스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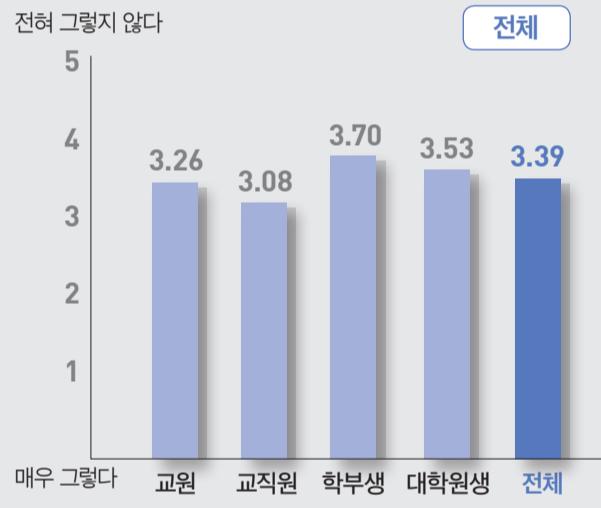
진로설계아카데미

미래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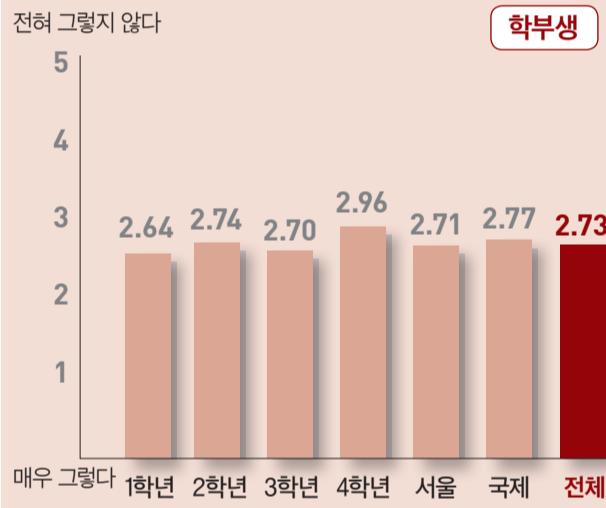
길잡이센터

Future Space

미래창조스쿨의 교육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



미래창조의 인증을 받을 것이다



학부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오픈랩 공간이었다. 조사 결과 ‘오픈랩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인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학부생들의 응답은 평균 2.19점으로 ‘그렇다’는 입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을 앞둔 3, 4학년(2.15점)이 1, 2학년(2.22점)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오픈랩 운영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으로는 ‘정보교류’와 ‘상담’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오픈랩에 포함되어야 할 공간’으로는 ‘정보공유실’과 ‘모둠활동실’이 꼽혔다.

한 학생은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에서 “오픈랩이 같은 분야에서 같은 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카페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생과 교수, 또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스쿨은 ‘인증제’ 형식으로 이뤄진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증제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가령, ‘인증제는 학생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학부생들은 평균 2.41점(그렇다)의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으며, 특히 1학년(2.33점)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두 문항, ‘나는 미래창조스쿨의 인증을 받을

것이다’, ‘나는 미래창조스쿨 교육과정에 참여할 것이다’에 대해서도 1학년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스쿨 운영준비팀은 “취업을 앞둔 4학년에 비해 1, 2, 3학년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인증제는 호평, 미창 명칭은 불평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동안 사용되어온 미래창조스쿨이란 명칭 외에 새로운 명칭을 공모했다. 이는 미래창조스쿨이 또 하나의 단과대학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에서 한 학생은 “이름 때문에 전혀 이런 취지인지 몰랐다”며 “자칫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미래창조부나,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 대학과 혼동할 수 있다”며 “취지와 어울리지도 않고 이름만으로 어떤 곳인지 모르니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모된 명칭은 ‘미래인재개발팀’, ‘디딤돌 스퀘어’, ‘길잡이센터’, ‘미래비전스쿨’, ‘경희인재양성소’, ‘미래교육원’, ‘취업진로광장’, ‘CAS(Course for Advanced Society)’ 등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학부생들은 이외에도 미래창조스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 A학생은 “또 다른 단과대학의 인식이 있어서 안 된다. 또한 기존의 취업 프로그램처럼 기업에 합격하는 방법만 제시한다면 미래창조스쿨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B학생은 “급하게 만들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한다”며 “미래정책원에서 여러 안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지속적인 설문을 실시해서 합의를 보는게 어떻겠나”고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지금은 학교의 내실을 다질 때”라며 “학교의 기본 투자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외부 사람들에게 이름만 번지르르한 어떤 것을 만드는게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미래창조스쿨 운영준비팀은 “미래창조스쿨의 설립 취지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면이 있으나, 학생들의 긍지와 사회진출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전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을 더 확고히 개발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오픈랩은 정보공유와 사회진출을 위한 연습장의 역할 하려면 세심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Global Collaborative 2017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기간
- 장학금
- 문의

2017.06.30 ~ 07.27 [4주간]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1개 강의 (GC홈페이지 참조)
국내외 대학(원)생
2017.03.13 ~ 04.30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 (추후 공지예정)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nu.ac.kr 홈페이지: http://gafc.knu.ac.kr/gep 페이지: www.facebook.com/khugc



기획

제3의 중핵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 '팀 티칭'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②

양윤주 기자 cyanide@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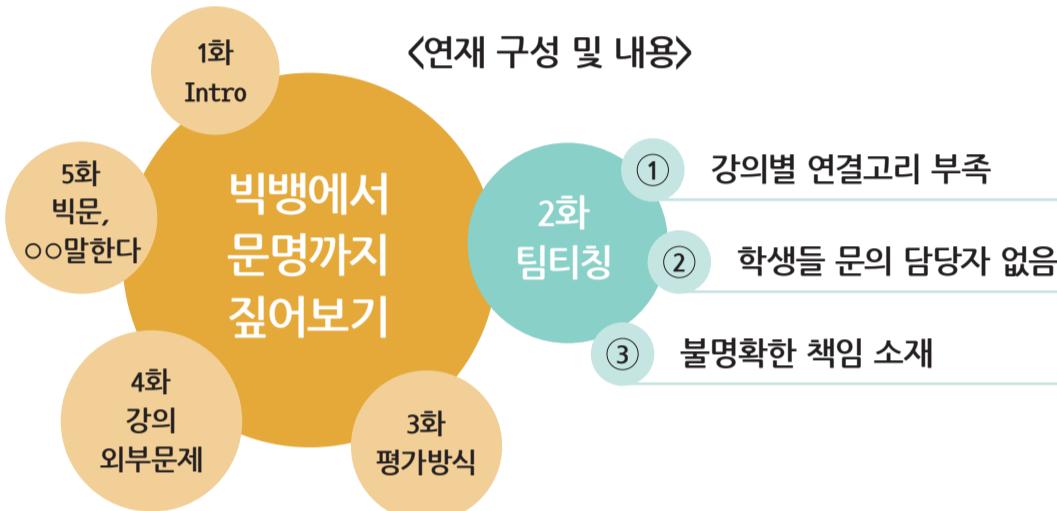
#.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제1의 중핵 '인간의 가치탐색'과 제2의 중핵 '우리가 사는 세계'에 이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도입된 제3의 중핵교과이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빅문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려사항들을 짚으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 또한 학생에게 전달하고자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현재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 기사에서 학생들이 주로 제기하는 불만들을 취합, 정리한데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그 중 '팀 티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은 다른 중핵 교과들과 다르게 '팀 티칭'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취재결과, 현재 서울캠퍼스(서울캠)의 경우는 팀 티칭이 모든 강의에 적용됐지만 국제캠퍼스(국제캠)는 현재 11개의 강의 중 8개의 강의만 적용되고 나머지 강의는 팀 티칭이 아닌 한 명의 교수가 한 반을 전답해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팀 티칭(team teaching)은 몇 사람의 교수가 팀을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196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육과정 개혁의 일환이다. 교사의 교수조건 향상과 광의적으로는 교육환경의 향상을 위해 개발됐지만 국내에서 대학수업에 팀 티칭을 적용한 관련 연구는 극히 소수다. 우리학교의 경우 이번 학기 서울캠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에서 팀 티칭 방식을 채택한 이론 교과는 빅문을 제외하면 '대학의 역사' 한 개뿐이다.

빅문의 팀 티칭은 이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이과대학 전임교수들로만 이루어졌다 는 것이 특징이다. 빅문은 과학적 사고의 증진을 위해 관련 지식의 범위와 심도를 아우르는 강의로서 후마에 등장했다. 빅문의 범위는 강좌명 그대로 '빅뱅'에서 '문명'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인간 역사를 다루는 다른 중핵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다. 또 빅문의 목차를 살펴보면 물리, 화학, 생물 등 다양한 과학 분야가 복합적으로 구성돼있다.

빅문의 교수진들은 이러한 범위와 깊이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끌어야 하기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넓은 시선을



가진 전임교수들이 '팀 티칭'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는 입장이다. 단지 범위를 뛰는 것 이상의 '과학적 사고'까지 기르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팀 티칭은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학생, 팀 티칭으로 인한 혼란

강의별 연결고리 부족 느껴

빅문의 기획·운영을 맡았던 이과대학 권영범(물리학) 교수는 "각 교수마다 전문분야가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야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학주보가 제1618호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생이 빅문에서 느낀 문제점의 2위를 '팀 티칭으로 인한 혼란(17%)'가 차지할 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짙었다. 팀 티칭에 대해 느끼는 불만은 설문의 주관식 응답과 인터뷰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대학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 185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팀 티칭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A씨는 "팀 티칭을 하는 교수님들의 수업내용 간 상관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빅뱅에서 문명까지라는 빅 히스토리의 유기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과편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한국교양교육학회가 2016년에 발표한 실천사례연구에 따르면 팀 티칭 방식을 적용한 국내 P대학의 융합교양과목에서도 '수업방식에 대한 불만'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한다.

현재 빅뱅에서 문명까지의 수업진행 순서는 각 반마다 상이하다. 교수들의 수는 정해져 있고, 담당하는 분야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반이 '빅뱅'에서 '문명'까지를 같은 순서로 배울 수는 없다.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는 모든 반이 같지만 그 범위를 수강하는 순서는 각 반마다 다르다. 이에 빅문 교수 측은 "중간고사, 기

말고사 바로 전 시간에 그 동안 진행했던 내용을 담은 통합 PPT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지만 설문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마지막 정리 시간은 한 교수님이다 진행해 그 교수님의 분야가 아닌 분야는 그냥 넘어가거나 아주 간단히 말해주셔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문의사항 해결해 줄 담당자 없어

갈팡질팡 곤란 겪는 학생들

빅문의 강의계획서에는 2~3명의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5~7명의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결의 경우 서울캠은 한 명의 조교가 이를 맡아서 관리한다. 수업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문의사항은 특별히 담당자가 없다. 학생들은 문의사항이 생긴 경우 혼란을 겪고 있다. 설문 응답자 중 B씨는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담당자가 모호해 힘들

었다"고 답했으며 C씨는 "문의를 했을 때에 얻은 답은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하겠습니다'였다"며 "담당 코디네이터가 누군지도 모르고 문의사항에 대한 답도 얻지 못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빅문 교수측은 "교수들 간 회의를 통해 각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명확한 책임소재

누구를 위한 강의평가인가?

강의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한 팀 티칭의 특성상 교수와 학생 모두 빅문 강의평가에 곤란을 겪고 있다. 강의평가는 학생이 해당 강의와 교수에 대해 평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 그러나 빅문의 강의 평가는 문제가 있지만 교수 평가는 곤란하다. 강의계획서에 쓰인 담당 교수 2~3명을 수업에서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수업은 한 학기 중 평균 2~3회 뿐이기 때문이다. 설문의 주관식 답변들 중에서는 '강의평가 교수 항목에서 어떤 교수님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는 답변과 함께 '교수님들마다 강의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기 힘들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교수들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빅문의 종괄을 맡고 있는 이과대학 송재규(화학과) 교수는 "다른 교수 강의에 대한 의견이 강의계획서 담당 교수의 강의평 가로 이뤄지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현재 종합정보시스템으로는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과도기적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며 "학생들이 실시한 강의평가의 주관식 답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빅문을 기획·운영하는 PD교수들은 교재 제작을 통해 현재 제시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학생은 "교재가 있다면 흐름을 파악하기에 쉬울 것"이라는 의견과 "PPT 자료의 특성상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 학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이에 PD교수들은 "현재 학생들의 의견을 검토하며 서울과 국제에서 동시에 교재를 작성 중에 있다"며 "다음 학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의 재정상황 때문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해결시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강의 PPT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정원내 신(편)입학 정시전형 모집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 접수	2017. 4. 10(월) 10:00 ~ 14(금) 17:00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업체 http://www.uwayapply.com
서류 제출	2017. 4. 10(월) 10:00 ~ 17(월) 12:00까지	방문 제출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
서류 접수 및 도착 확인	2017. 4. 11(화) 10:00 ~ 17(월) 17:00까지	http://www.uwayapply.com 에서 지원자가 직접 확인
전형일시	2017. 5. 13(토) 10:00	면접(실기)교사 학과별 실시
합격자 발표	2017. 6. 2(금) 15:00 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2017. 7. 3(월) ~ 7(금) 16:00까지	KEB하나은행 가상계좌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nu.ac.kr>)에 공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nu.ac.kr>) 공지사항 또는 '입학'메뉴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학년도 후기 공공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모집분야 및 인원

과정	모집인원	학과	전공명	학위명
석사과정	약간명	정책학과	공공정책전공	행정학석사
		의료관리학과	간호행정전공	의료행정학석사
		병원행정전공	병원행정전공	의료행정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시민사회·NGO학과	시민사회·NGO전공	시민사회(NGO)학석사
글로벌기变速학과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2017. 5. 8(월) ~ 24(수) 17:00 (직접방문제출 : 10:00~17:00까지)	•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관련서류 제출은 직접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가능 • 토/일요일은 관련서류의 직접방문 제출을 받지 않음
전형일(면접고사)	2017. 6. 3(토) 14:00	• 장소 : 청운관 • 시험시작 시간 20분전까지 입실
합격자 발표	2017. 6. 23(금) 14:00	• 공공대학원 홈페이지
합격통지서, 등록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2017. 7. 3(월) ~ 7(금)	• 공공대학원 홈페이지 • 하나은행 가상계좌
전형료 및 접수수수료	55,000원(전형료 50,000원 + 인터넷 접수수수료 5,000원)	• 원서접수 (유웨이어플라이 전형료 결제) 이후 전형료의 환불은 불가함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함

• 강의 : 매주 화요일/수요일 야간

• 다양화장학혜택 : 공공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Tel. 02-961-9240~1 Email: pnc@knu.ac.kr 홈페이지: <http://pnc.knu.ac.kr>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지원금 70억 SW인프라 구축에” 타 학문과 연계 통한 융합교육 확대

SW 중심대학 선정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우리학교가 지난 3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센터(IITP)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SW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바탕으로 학생·기업·사회와의 SW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SW 가치 확산을 실현하는 대학을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엔 우리학교를 비롯해 광운대, 단국대, 조선대, 중앙대, 한동대 등 6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돼, 총 20개교가 ‘SW 중심대학’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15년에는 5:1, 2016년에는 5.2:1이었던 경쟁률은 올해에 이르러 총 38개 대학이 지원함에 따라 최종 6.3:1을 기록했다. 비교적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가 이번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조진성(컴퓨터공학) 교수는 “지속적으로 사업 선정을 위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며 “지금까지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을 72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하고 SW융합학과를 신설했으며, 교양교과인 ‘소프트웨어적 사유(Computational Thinking)’를 운영하고 ‘경희 SW나눔봉사단’을 조직하는 등의 노력을 펼친 바 있다.

최종 경쟁률 6.3:1

선정 배경은 사전준비

우리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11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차 년도인 2017년에는 10억 원, 2~4차 년도인 2018년부터 2020년에는 각각 20억 원씩으로 4년 간 총 70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원받는다. 4년간의 사업 수행 후에는 정부의 평가를 통해 추가 2년(2021년~2022년) 동안 각 20억 원씩을 연장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관련학과(컴퓨터공학, SW융합학) 학생뿐 아니라 우리학교 전체 학생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조 교수는 “우선적으로 학교 전체의 SW교

육을 위한 SW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실습비 및 실습장비 확충과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의 전담교수 등의 인적자원에도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구축된 SW인프라는 전교생 대상의 SW융합교육 및 SW기초교육에 사용돼, 용인시 및 인근 지역의 초·중·고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SW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다.

최대 110억 원 지원금

SW융합·기초 교육에 투자

한편 SW융합학과 학생회 측에서는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SW융합학과 학생회 주민하(SW융합학 2017) 회장은 “실습실의 컴퓨터 전원이 커지지 않는 등 다른 대학들에 비해 우리학교의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이 많이 열악한 편”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시설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데이터 관련 프로그램, 게임엔진, 하드웨어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해봄으로써 학생들이 각자 지향하는 트랙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우리학교 측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으로는 ‘SW융합단과대학 설립’, ‘K-SW인재 전형 신설 및 장학금 전액 지원’, ‘KU SW부트캠프 프로그램’,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학·硕사 연계과정’ 등이 있다.

‘SW융합단과대학 설립’의 경우 현재 전자정보대학 소속인 컴퓨터공학과와 SW융합학과를 떼어내 새로운 단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보대학 이수열(생체의공학) 학장은 “SW융합단과대학이 설

립되면 앞으로 융합 교육의 확대를 위해 예술디자인, 로봇, 빅데이터 등의 분야와 연계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대학본부와 교수임용과 공간 활용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2019년부터는 ‘K-SW인재 전형’을 통해 30명의 학생이 선발될 예정이다. 컴퓨터공학과와 SW융합학과 정원의 20%가 ‘K-SW인재 전형’의 두 갈래인 ‘학생부 종합전형(20명)’과 ‘실기우수자전형(10명)’으로 나뉘어 선발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설예정인 ‘실기우수자전형’은 SW관련 활동내역과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될 계획이라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K-SW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생들은 직전 학기 성적이 3.5이상일 경우 4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KU SW 부트캠프 프로그램’은 비전공 학생들을 위한 SW 부전공프로그램으로, ‘창업형’, ‘취업형’, ‘인증형’, ‘실현형’ 중 하나를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조 교수는 ‘본인의 전공에 SW라는 무기를 부전공으로 장착해 미래사회에 주역으로 부팅될 수 있는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다.

특성화된 ‘학·硕사 연계 과정’도 도입된다.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학·硕사 연계과정’이 그것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학·硕사 통합 교육 과정을 통해 5년간 압축적으로 교육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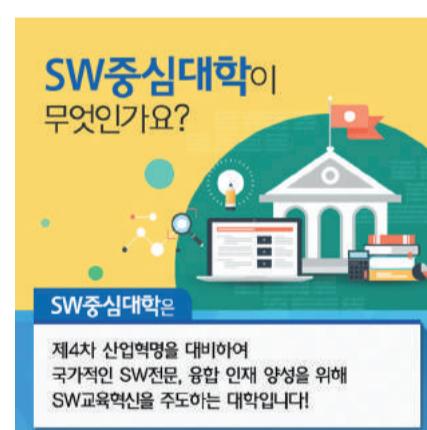


사진 출처 : 미래 창조 과학부



지난 11일 서울캠 본관에서 열린 대학평의회

(사진=기호웅 기자)

김영란법 관련 학칙개정 논의 중

대학평의회 회의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 최고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 회의가 지난 4월 11일에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의 대표들이 모여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경희의료원 및 강동경희대 병원 결산 자문 ▲우리학교 결산 자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학칙개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는데 작년 3월에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칙을 명료화 또는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졌다. 서울캠퍼스(서울캠) 교무처 지은림 처장에 따르면, 제 42조 1 항의 교과목에 따라 시험을 미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그 기간 중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이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학기 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 추가시험, 특별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소개했다.

특성화된 ‘학·硕사 연계 과정’도 도입된다. ‘바이오메디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학·硕사 연계과정’이 그것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학·硕사 통합 교육 과정을 통해 5년간 압축적으로 교육하게 된다.

학칙 개정 논의로

정기시험 필수화

또한 2항에 출석인정 사유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각 교과목 중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소개했다.

(출석인정)의 사유로 인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제44조(주기시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주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했다. 제47조(성적경고)는 3항을 신설해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의무 수강하는 학기에 받은 성적경고는 제2항의 성적 경고제작에 필요한 연속 학기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 쳇장은 “한국어능력이 부족해서 성적경고를 받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62조 결석계에 관련된 조항은 따로 운영되는 학사운영규정과 중복되어 삭제됐다.

개정안에 대해 총학생회

‘보완책 필요할 것’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은 “42조 1항 개정안에 따르면 과제 또는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던 시험이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며 “여러 해석이 가능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이후에 다시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 쳇장은 “학사관리 기준이 엄격해 짐에 따라 성적산출의 근거가 명확히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동문대표로 참석한 성기석 동문은 “42조에 대체시험에 대한 규정을 넣어주면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스쿨 원장을 교무위원으로 포함하는 경우와 직책의 권한설정에 관한 부분도 논의됐다.

2017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기간 : 2017.4.17(수)~4.24(월)17:00

2. 원서접수방법 : 온라인접수(<http://www.uwayapply.com>)

3. 모집전공

구분	재교육과정	양성과정
서울캠퍼스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행정, 박물관·미술관교육, 보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상담심리, 영양교육, 유아교육, 국어교육, 물리교육, 미술교육, 상업교육, 생물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음악교육, 일반사회교육, 화학교육
국제캠퍼스	교사리더십, 초등영어교육, 실용음악교육, 평생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중국어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유아교육

4.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 단, 양성과정의 경우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 대학원 전공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관련학과 34학점 이상 이수자 및 기본이수과목 3과목(분야)이상 이수자, 국어교육 2분야 이상, 상업교육 4분야 이상)
- 그 외 전공별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을 참고

5. 전형요소 : 서류, 필기, 면접 등

6. 특전

- 경희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동문장학금 지급
- 양성과정의 경우 중등학교장교사(2급) 자격증 취득

7. 문의처

• 서울캠퍼스 : 02-961-0135~6 • 국제캠퍼스 : 031-201-2021~2

• 홈페이지 <http://edu.khu.ac.kr>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분	학과	전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장학제도

구분	장학금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업료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다만, 정부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공무원장학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수업료의 15%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공기관장학	수업료 1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1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경희동문장학	수업료 10%	본교 및 호텔경영전문대학 동문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목련장학, 모범대학장학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이간) 및 주말 개설

※ 토요일 집중 강의 개설,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교차수강 가능

● 특별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7.4.24(월)~5.11(목)17:00
- 전형일정 : 2017.5.13(토)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전형료 : 전형료 면제(특별전형 특전)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 출입 예정증명서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문의처 · 전화: 02 - 961 - 0905 · 홈페이지: interlaw.kh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기획

독도, 머나먼 하지만 가까워야하는 우리 섬

독도 방문기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 어떤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찡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 2016년의 ‘촛불시위’ 등, ‘독도’도 그려하다. 대한민국 동쪽 끝. 명백히 우리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서슬어린 야욕에 화가 나는 땅. 그러면서도 항상 굳건히 버텨주는 땅. ‘울릉도 동남쪽 벚길따라 이백리’를 흥얼거리며 3월 31일~4월 1일, 9개 대학 학보사 기자들은 독도아카데미와 함께 독도를 다녀왔다.

3월 31일 밤 11시 30분, 심야버스만 쓸쓸히 다니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9개 대학 학보사 기자들이 모였다. 식어버린 참치김밥을 육여넣으며 탑승한 버스는 차 가운데 밤공기를 헤치고 울릉도행 여객선이 출항하는 울진 후포항으로 향했다. 하늘이 돋지 않는 것일까. 서울을 나설 때부터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는 휴게소에 도착할 때 즈음 굽은 빗줄기로 바뀌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울릉도도 못 들어간 적이 있다”라는 독도 아카데미 탐방 단장의 협박 아닌 협박을 들으며 울진 후포항에 도착했다. 밤새 고속버스에서 새우잠을 자며 후포항에 도착하니 자욱한 안개가 우리를 맞았다. 비린내 가득한 횟집에 들리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매운탕을 한 숟갈 떴다. 순가락 안에는 칼칼한 매운 맛과 비 냄새가 담겼다. 항구에 왔구나, 독도에 가는구나. 비로소 실감이 났다.

다행히 날씨는 곧 개었다. 울릉도로 향하는 배를 탈 수 있었다. 그렇게 독도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희망도 잠시, 곧 미친 듯이 흔들리는 배는 지금까지 겪어본 어떠한 교통수단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파도가 철썩일 때마다 내 속도 함께 철썩였다. 화장실 앞은 벗멀미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 천지였다. 배는 두 시간을 흔들려 울릉도에 도착했다. 울릉도에 밭을 딥자 날씨는 거짓말처럼 화창해졌다. 햇빛에 부서져 반짝이는 바다와 화산섬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풍당당한 성인봉이 어울려 기묘한 풍경을 이뤘다. 쓰린 속과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넘어가지 않는 도시락을 먹으며 바로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독도로 향하는 배를 탔다.

울릉도에 올 때보다 파도가 잔잔했다.

독도는 어려운 섬이다. 맑은 날씨라도 파도가 조금이라도 친다면 정박하지 못해 ‘삼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실제로 일 년에 45일에서 65 일정도만 독도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 시간 쯤 지났을까. “와아! 독도!” 환호성이 들렸다. 베전으로 나가보니 어렴풋이 독도가 보였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배가 독도 동도 선착장에 당자 모두들 한 마음으로 박수를 쳤다. “충성!” 독도 경비대의 우렁찬 환영 경례에 비로소 독도에 온 실감이 났다. 하지만 만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독도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단 20분이다. 독도가 허락한 공간 또한 독도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다. 독도에는 약 60여 종의 식물들과 160여 종의 조류 등이 살고 있다.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외부인은 동도 선착장 근처만을 둘러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모두 둘러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주어진 곳에서 독도를 최대한 느끼라 다짐했다.

대한민국 동쪽 땅 끝, 형언할 수 없는 감동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인 독도는 250만 년 전 바람과 파도에 의해 동도와 서도로 나뉘어졌다. 이 때 형성된 많은 바위들은 입을 벌여지게 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그 많은 바위들은 각기 이름을 갖고 있다. 선착장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부채바위는 ‘새들의 고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그 말처럼 갈매기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위) 독도 전경 ▼(왼쪽) 통행 제한구역을 경비 중인 독도 경비대의 모습 (오른쪽) 부채바위에 떼를 지어 모여있는 갈매기

(사진=박지영 기자)

온 길을 되돌아 나오자 독립문 바위와 서도가 보인다. 그나마 지형이 완만한 동도와 달리 가파른 서도는 아예 관광객이 더 데볼 수 없는 곳이다. 그런 이유로 동도에는 경비 초소와 등대에 약 30명이 거주하고, 서도 주민숙소에는 약 4명이 거주하고 있다.

독도를 모두 담을 수 없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삭이기 위해 독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독도 놓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독도 수비대원들이었다. 우리나라에는 독도에 군인 대신 의무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경찰의 존재는 독도

가 분쟁지역이 아닌, 명백한 우리나라 땅임을 대외에 증명한다. 관광객들은 각자 들고 온 운동품을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전해주며 사진을 찍었다. 관광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독도 경비대원들에게 다가가서 힘들지 않느냐고 슬쩍 물었다. “힘들진 않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신선하죠.” 이번엔 관광객에게 다가가 독도에 오시니 어려워 물어봤다. “아유~ 친구들이랑 중국도 갔었어. 근데 독도는 훨씬 예뻐. 독도를 진작 못 온 게 아쉬워.” 친구들과 함께 관광 온 임인순(68) 씨는 소녀처럼 해맑게 웃었다. 가

족과 함께 독도를 놀러온 박지민(18) 양은 “독도수비대 오빠들이 너무 멋있었다”며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탑승하셔야 합니다. 얼른 탑승하세요.” 짧은 만남은 승선 대총과 함께 끝이 왔다. 울릉도로 돌아가는 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암괴석들이 만드는 풍경,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 풍부한 천연가스가 여전히 탐이 나서였을까. 일본은 3월 31일 또 다시 도발을 했다. 하지만 이젠 느낄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주장은 독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2017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안내

2017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훈련 안내

2017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대상: 공학계열 학부생(최소 2인 이상, 팀 학과간 구성 가능)

▶신청방법

- 기간: 2017.3.20.(월)~4.20.(목)
- 방법: 참가신청서나 메일 제출(ceee@khu.ac.kr)
- 신청서 다운로드: 공학교육혁신센터 공지사항 참조(aeek.khu.ac.kr)

▶활동내용

- 창의·융합적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직접 시제품으로 제작해보는 프로그램
- 신입생 연계 공과대학 종합설계 프로그램 주제로 선정할 시 기업 현장 방문 및 면담등이 제공될 예정(공지사항 참조)

▶지원혜택: 시제품 제작 재료비, 경진대회 참가경비 지원 및 우수팀 해외 연수 기회 제공

▶시상내용

구분	시상내용	부상
교내 경진대회	금상, 은상, 동상 (경희대학교 충장상)	
거점 경진대회	금상, 은상, 동상 (성균관대 공학교육거점센터장 상)	상장 및 상금
전국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후원기관장상	

• 시상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프로그램 일정

- 제안서심사: 2017.05.10.(수)
- 교내 경진대회: 2017.6월
- 창의적 종합설계 거점 경진대회: 2017.9~10월 중(교내 입상자 대상)
- 창의적 종합설계 전국 경진대회: 2017.11월 중(거점 대회 입상자 대상)

▶문의

-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031-201-3254 또는 icee@khu.ac.kr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1. 훈련대상: 전역 1~6년차 예비군 전원

2. 장소: 금곡예비군훈련장

3. 일정

훈련일자	인원(명)	소속
계	2,706	
5. 10(수)	603	교(직)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법학), 특수대학원(경영/공공/관광/교육/법무/언론정보/평화복지), 음악대학, 무용학부, 미술대학
5. 11(목)	542	정경대학
5. 12(금)	547	이과대학, 호텔관광대학
5. 15(월)	506	경영대학(경영학과), 자율전공학과
5. 16(화)	508	간호과학대학, 경영대학(회계사무학과),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악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학

* 훈련 명부는 불임 창고

* 훈련 안내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으로 공지

4. 이동방법

가. 단거리 이동

- 1) 이동수단: 대형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 2) 출발장소 / 시간: 청문관 일도로 / 07시 50분 출발

나. 개별 이동

- 1) 시내버스: 30번(청량리/휘경동), 23번/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 2) 전철: 경의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으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 3) 개인차량: 약도참조

5. 참가사항

- 가. 2부 출신 7년차 이상, 병 출신 7~8년차, 당해년도 전역자는 미부과
- 나. 학과·학년 구분 없이 동시실시 및 성씨별(가나다순) 학급편성

다. 복지전투복, 전투모, 군화불량자 결식처리

- 라. 신분증 미소지자 결식처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 여권, 학생증 기계 인식불가)

마. 지각자 귀가조치→반드시 08시 50분 까지 부대정문 도착

바. 교육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부대 1일 수용인원, 버스대수 등의 사유로 일정변경 절대불가

사. 결식 및 지각으로 인해이고 별금형통의 불이익처분에 유의

아. 훈련편성(예비군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누락된 예비군은 연대본부로 전화 또는 방문요망

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급여서비스 및 급여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차.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상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카. 2014년 9월 1일부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유예자) 학생훈련 제외, 병무청(동원) 또는 지역 일반훈련 대상

타.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부대에서 지급되는 중식비 사용

6. 기타

가. 기타 문의사항은 청문관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예비군연대본부(☎ 031-0148~5)로 문의

나.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 수신을 위해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포털사이트 '예비군' 검색)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폰 번호로 반드시 수신

7. 금곡(미금) 훈련장 약도



8. 찾아가는 방법

• 시내버스 이용

- 청량리/휘경동: 30번, 천호동: 23/1~4번, 강변역: 93번

• 전철 이용

- 중앙선 덕수/용문행(도농역) 하차 2번 출구 위의 버스로 환승

• 개인차량: 예비군이전

- 경기도 남양주시 이파동 284-1번지 or 금곡훈련장/충일아파트 강색

• 전화번호

- 221-연대: 031-595-8337(교환) 연대동원부 또는 3대동원부

- 경희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 02-961-0148~9

※ 반드시 8시 50분 까지 금곡훈련장 부대정문에 도착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장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다시 뽑지 않으려면

시론

채진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상호비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왜 선거만 하면 이 모양일까? 문득 조용 필의 노래 '그 겨울의 첫집' 가사 중,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구절이 떠오른다. 최근까지 벌어진 후보자들 사이의 네거티브 캠페인과 흑색선전 그리고 프레임 전쟁을 보면, "내가 막장 저질 네거티브 보려고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을까? 자고 감이 든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4월 15~16일 후보등록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5월 9일 투표일까지 불과 23일 남았다. 남은 시간동안, 과연 우리 국민들은 탄핵으로 쫓겨난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다시 뽑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시민들은 대선의 성격을 '별꽃대선'이나 '장미대선' 아닌 '촛불대선'으로 명명하자고 요구했지만 그에 걸맞는 정치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후보들의 정책실종 사태는 박근혜 후보 부실검증과정이 초래한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51%의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선 촛불대선 의지 정치권에선 흑색선전 만연

일찍이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의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불량품인 박근혜 후보를 공천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은 정당의 후보공천과 검증,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이 잘못되면, '정부실패'와 '정치실패'로, 민주주의가 위기 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이상은 후보자 간, 그리고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숙고 및 합의가 일어나는 것이다. 선거과정이 그렇지 않다면 선거



지난달 11일 마지막 촛불집회에서 행진하는 시민들

(사진=기호옹 기자)

란 슈퍼터가 말한 대로, 소수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중들에게 경쟁하는 혁, 쇼를 하는 '과두제적 요식절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물론 탄핵결과로 급조된 선거라 정책검증을 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경쟁을 회피하는 것은 평계이며 유권자에게 동의받기 힘들다. 합리적인 유권자는 세금으로 대통령의 국정정책과 비전을 구매하거나 양쪽을 교환해야 하는 입장이다. 정책과 비전 없는 후보는 능력 없는 후보로서 불량품에 해당되기에 동의받기 어렵다.

정책에 대한 검증과 숙고가 없는 선거란 결국 공공선택이론가의 주장처럼, 정책편의는 51%의 다수파들이 독점하는 반면 비용은 49%의 소수파들이 부담하게 되는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책에 대한 숙고가 없는 선거는 자율성을 지닌 시민적 유권자보다 재벌과 같은 응집력이 강한 이익단체들의 사의추구적인 이익이 과대 대표되거나 과다 투입되어 정경유착, 이권담합(로그롤링과 포크밸), '관피아' 등과 같은 지대주 구자의 기승으로 결국 정부와 정치의

공공성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주요 정책과 비전에 대한 국민적 토의와 합의과정 없이 후보가 당선되어 정부가 구성될 경우, 선거 이후 정책에 대한 정당들의 의견충돌로 국정운영이 교착에 빠지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가 숙의민주주의의 장으로 유품우기 위해서는 후보 간, 후보와 유권자 간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대화와 토론은 양자 간의 신뢰를 높여 준다. 이를 위해서 후보자들은 정책토론회에 만전을 기하고 유권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경쟁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세론'의 붕괴 이후 '문-안 양강구도'로 재편

이번 선거는 여론조사의 추세를 볼 때, '문재인 대세론'이 무너지고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 중 누가 더 중도, 중도보수층, 무당파의 전략투표를 받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중도층 흡수를 위해 유권자들의 선호, 이익, 정체성을 변형하여 새로운 중도층을 만드는 '트라이앵글레이션(triangulation, 삼각화) 전략'과 충분한 토론이 투표로 연결되는 '숙의투표(deliberative voting)'를 어

느 후보가 사용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된다. 트라이앵글레이션은 좌우와 중간 지대를 넘어서 통합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삼각형 위 꼭짓점의 자리를 선점한다는 개념이다.

대선 후보들은 일방적인 주장자가 아닌 토론자로서 안보이슈는 물론 양극화 극복, 청년실업, 임금격차 해소 등 민생정책을 놓고 국민과 토론해야 한다. '헬조선'과 '흙수저'로, 좌절감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는데 올인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원인이 '저임금의 값싼 일자리의 부족'이 아닌,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 엉뚱하게 '값싸고 열악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이 아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부터 해소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 해답은 일본의 아베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대 임금제"에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면 지금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자리부족'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부족'의 문제이다. 어느 청년이 대기업의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해놓고, 비정규직 임금을 주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겠는가?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마당

조형래
(스포츠지도학 2013)

다가오는 대선과 청년정책

긴박했던 탄핵정국을 지나 내달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높에 빠진 대한민국의 성장 돌파구와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앞날은 향후 5년을 책임질 어떤 리더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디 현명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차기 정권에서는 담담한 현실을 해결해 줄 청년정책이 많이 밸이되였으면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년정책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지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창업 지원과 공공기관, 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보를 내세웠다.

먼저 청년창업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창업 아이템을 가진 인재를 지원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였다.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둔듯하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발의로 푸드트럭 규제를 폐지하여 우리학교 학생의 '스테이크아웃' 같은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제공과 창업유관기관의 투자지원으로 다양한 업종에 도전하는 청년 스타트업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무색하게 하는 어두운 면이 있다. 서울시 푸드트럭 468대중 169대는 폐업했다고 한다. 구청이 지정한 공유지나 법으로 허용된 위치에서만 트럭을 열 수 있고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겪기 때문이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무너지고 만다. 정권의 예상과 달리 실직이 저조하니 단순히 고용지표를 올리기 위해 청년 창업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게 되었다. 차기 정부는 청년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창업정신이 좌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계획했으면 한다. 또한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다른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기를 기대해본다.

청년들의 패기와 아이디어 지키려면 장기적 시각 필요할 것

다음은 일자리 관련 정책이다. 지난 정부는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기대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체험형 인턴 인원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낮추며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이나 경쟁력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구직자의 대기업 지원율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들은 고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장벽이나 규제에 무너지지 않게 잠재능력을 갖춘 기업을 살리는 제도와 이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차기 리더의 선출은 앞으로 20~30년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이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는 도산 안창호의 말을 새기며, 낙망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희망과 의지가 반영된 나라를 세우길 기대해본다. 모두가 정치현안에 관심을 두고 현명한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힘을 모을 때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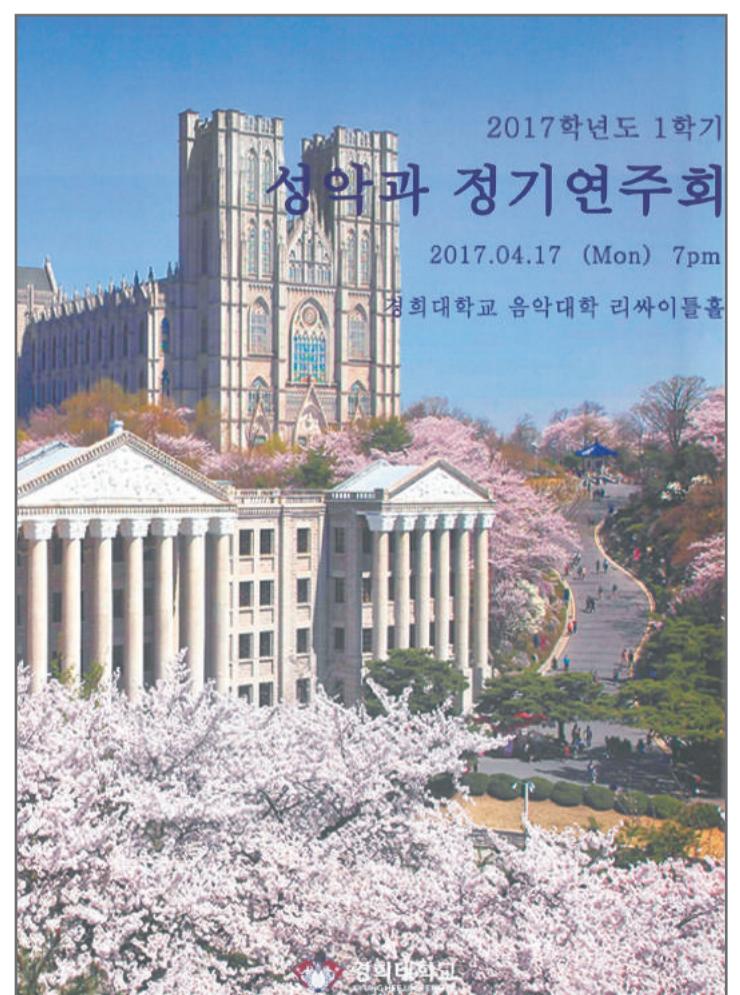
•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2017.5.8.(월)~6.16.(금) 접수기간: 2017.4.17.(월)~2017.5.4.(목)

• Level Test : 영어회화: 4.27(목), 5.1(월) 17:30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4.27(목) 17:15

•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시간	수강료	Basic /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영어 레벨업	Ted Talk	150,000원			
일본어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150,000원	120,000원	90,000원	
중국어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중급2 / 고급	150,000원			
스페인어	초급1	90,000원	120,000원		
프랑스어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독일어	초급1		초급1	초급2	초급3
베트남어			오후반 17:30~18:50 (월, 수)	오후반 19:00~20:20 (월, 수)	오후반 18:30~19:50 (화, 목)
이탈리아어			초급1	초급2	초급3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기획

상처를 사랑으로 품어준 보금자리

유기견 보호소 ‘꽁꽁이네’ 이야기

안선희 기자 37ahd@knu.ac.kr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nu.ac.kr

#. 내 지금 이름은 ‘까미’다. 원래 이름은 ‘초코’였지만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은 이제 없고 아저씨는 나를 ‘까미’라고 부른다. 내가 살던 집은 아주 예전에 없어져버렸다. 그렇게 주인 님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내 옆엔 훠바닥과 쌀 쌀한 바람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남았다. 무척 힘들었지만 지금은 탁 아저씨 네에서 지내고 있다. 지금은 나 같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그 추웠던 때에 비해선 좋지만, 요새 아저씨 표정이 이상하다… 예전 주인님이 떠나시기 전과 비슷하다고 할까. 이렇게 아저씨와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요새 걱정이다.



탁남일 씨는 1998년 지인으로부터 유기견 한 마리를 부탁받아 기르게 됐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꽁이’였다. 안타까운 마음에 유기견들을 한두 마리씩 거두다보니 탁 씨는 ‘꽁꽁이네’의 소장이 됐다. 그리고 2011년 11월, 영통에선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20층 말끔한 아파트가 새로 올라가는 과정은 꽁꽁이네도 피해 가지 못했다. 강제 아주 명령이 떨어지고 수원시에서 이사비용으로 건넨 640만원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꽁꽁이네’는 처인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탁 소장이 강아지들과 함께 지낸지는 어느새 20년이 돼 간다. 소장님 올해 연세는 66세. 일거리는 점점 줄고, 신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지만, ‘꽁꽁이네’의 월세는 이미 10개월이 밀렸고 계약도 만료돼 오는 10월이면 또 다시 자리를 옮겨야 할 처지다.

악화되는 자금문제… 위기의 꽁꽁이네 자원봉사 도움있지만 여전히 어려워

지난 4월 6일 페이스북에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 ‘꽁꽁이네’에 관한 글이 게시돼 화제가 됐다. 한 용인대 학생이 올린 글은 ‘꽁꽁이네’가 자금문제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자원봉사와 후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중에는 우리학교 유기견 보호 소모임 ‘보금자리’(국제·서울캠퍼스 통합)도 작은 손을 보태고 있다.

‘보금자리’ 유채원(프랑스어학 2017) 회장은 “동물도 인간과 다름없이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다”고 말한다. 평소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았다는 유 회장은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동물 보호 동아리를 만들 결심을 했다. 아직 공식 동아리는 아니지만 벌써 서울캠퍼스 15명, 국제캠퍼스 35명의 회원이 모였다. “인간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은 동물이다”며 유 회장은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들 또한 누군가의 사랑을 받던 애완동물이었다. 지저분하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 대신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보금자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호소 방문 봉사활동과 더불어 앞으로 입양 활동, 유기동물 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버려진 애완동물은 한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음에 대한 슬픔과 배고픔 등 복합적인 감정이 서린 그들의 눈빛을 보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다. 농립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기준(동물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동물은 2015년 97만 9천 마리다. 그중 유기동물은 8만 2천 마리다. 버려진 동물은 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소 또는 사설 보호소로 간다.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선 7일 간의 공고기간을 갖고,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동물은 분양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애완사

처인구 운동동에 위치한 ‘꽁꽁이네’ 와 탁 소장님의 모습. 각각의 개들은 발견된 위치와 관련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새 거처를 구해야 할 처지다. (사진=안선희 기자)

에 처해진다. 사설 보호소에선 애완사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수가 적고 그나마도 자금 부족으로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다.

탁 소장은 “처음엔 영통동에서 가여운 마음에 버려진 개들을 한두 마리 받아주다 보니 어느새 70마리나 모였어요. 그런데 영통 구청에 몇 번의 경고를 받아 처인구로 시설 보호소를 작게 운영하게 됐어요”라며 유기견 문제가 남 일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주인의 품으로… 14.6%
안락사로 죽음… 20%

그렇다면 버려진 동물은 왜 이렇게도 많은 것일까? 우선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동물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지역 부서에서 ‘동물 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소유자를 찾아 유기견의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점차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유기동물이 14.6% 뿐이라는 점이 슬픈 실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애완사에 처해지는 경우가 약 20%인 것과

비교해보면 현실은 더 비참해진다.

이런 현실에 대해 탁 소장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이 “보호소로 보내진 대부분의 동물이 안락사를 당한다는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시작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등록된 동물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벌도 어렵다. 그렇다고 주인을 찾아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현재 그 수위는 100만원의 벌금 수준이다.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간이 짧다는 것 역시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되곤 하지만, 보호소 입장에선 계속해서 유입되는 동물을 두고 찾아가지 않는 동물을 무한정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동물들은 유기로 인해 거리를 떠돌거나, 안락사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들이 받게 되는 셈이다. 탁 소장은 “쉽게 사니깐 쉽게 버리게 된다”며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취를 하다보면 호기심 또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이 새 생명을 책임지는 것에 따른 막중한 의무에 대해선 무지하다는 것을 차운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